

1884년 해인사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는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 오른쪽은 19세기 대형 불화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두 제자'.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제공]

불법 유출 추정 19세기 불화

한국 불교계 품으로 돌아간다

'나반존자' 그림 등 2점

미술품 수집가가 기증

과거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불화 2점이 한국 불교계로 돌아간다.

뉴욕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나반존자' 그림과 대형 부처 불화가 뉴욕에 있는 사찰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로버트 털리(사진)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장이 29일 본지에 알려왔다.

털리 회장에 따르면 나반존자 그림 뒷면에는 '1884 광서 10년 (光緒 10年)' '해인사(海印寺)'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앞면에는 한자로 '나반존자위'라는 글이 윗부분에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힌두 전례용어가 쓰여져 있다. 크기는 세로 22.75인치, 가로 12.5인치다.

나반존자는 '독성(獨聖)'으로



도 불리며 스스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반존자 그림들은 조선시대 사찰에 지어져 있던 독성각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의 뒷면에 새겨진 글을 바탕으로 이 그림이 1884년 그려졌고,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의 해인사의 독성각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털리 회장의 설명이다.

또 부처님과 두 명의 보살,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부처 불화는 크기가 무려 세로 87인치, 가로 24.25인치의 대형 탱화(부처, 보살들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다. 신동찬 기자

→A-3면 '불화'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11월 아시아 순방 »한국판

17세 스노보더 클로이 김 고국서 올림픽 '금' 노린다

롤모델 켈리 클락 꺾고

월드컵 하프파이프 우승

미 언론들 스포트라이트

"한국서 경기 하게 돼 흥분"



25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미 대표 선수단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 클로이 김 선수가 성조기를 배경으로 스노보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AP]

로서의 소감을 묻는 인터뷰 호스트의 질문에 "나의 부모는 오래 전 한국에서 이민 왔고, 그래서 한국에 아직까지 많은 친척을 두고 있다"며 "부모님의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돼 기쁘고 약간은 흥분도 된다"고 말했다.

클로이는 지난 25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미 올림픽 대표팀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도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평창의 하프파이프는 훌륭하다"며 내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클로이는 "스노보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프파이프의 상태도 변수로 작용한다"며 "지난 2월 평창을 방문했을 때 하프파이프의 상태가 매우 좋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클로이는 이어 미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코리안아메리칸으

로이의 클린 연기에 밀려 낮은 점수를 받는 데 그쳤다.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클로이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캘리포니아주 룽비치에서 태어난 클로이는 4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취미 삼아 스노보드를 타고 배웠다. 6세 때 미 스노보드연합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른 클로이는 13세에 미 최연소 스노보드 국가대표에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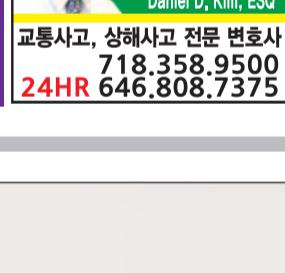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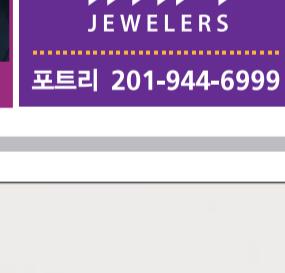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은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스포츠 스타 25명'에 리디아 고(뉴질랜드·골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테니스) 등과 함께 클로이를 뽑았으며 주간지 타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 한 명으로 클로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NJ 학군별 표준시험 합격률 »A-3면



7 18361 77000 4



OYSTER PERPETUAL
YACHT-MASTER 40



ROLEX

Diamonds & Fine Timepieces

The Shops at Riverside, Hackensack, NJ 07601

201-343-8655

ROLEX® OYSTER PERPETUAL
AND YACHT-MASTER ARE ® TRADEMARKS.